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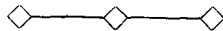
「엔」의 經濟

李 鍾 燾

〈中央大學校教授·經博〉

目 次

- I. Stagflation과 日本的 狀況
- II. 國際經濟環境變化와 日本經濟
- III. 日本經濟의 形成과 軍國主義
- IV. 日本經濟의 變質과 官僚主義
- V. 日本經濟의 屬性과 進路



I. Stagflation과 日本的 狀況

最近 克日運動이 高唱되고 있다. 克日에는 反日보다 知日이 앞서야 할 것이다.

日本の 円貨價値가 國際的으로 폭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는 日本經濟의 위력에 대해 겁을 내고 있다. 더우기 賦存資源이 全無한 日本經濟는 世界第一의 資源輸入國이기 때문에 70年代 두차례에 걸쳐 야기된 資源波動에서 침몰할 것으로 豫測되기도 했으나 반대로 先進國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錯覺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錯覺은 Stagflation이라고 하는 美國式 發想理論으로 現代資本主義社會의 複合的인 침체를 종합 설명하려는 時事經濟學이 붕괴하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Stagflation理論에 의하여 現實을 그럴듯하게 파악은 하였으나 1978年 以後 繼續된 長期性的인 世界 不景氣속에서는 이 理論이 속수무책의 이론이 되었고 영똥한 결과만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Stagflation理論이 日本經濟의 長點과 특수성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導出했기 때문이다. 最近에도 美國을 비롯하여 영국, 佛蘭서, 이태리는 물론 서구의 우등생인 西獨까지도 인플레이와 失業과 國際收支의 赤字라고 하는 Stagflation의 標本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日本은 세계제일의 國際收支黑字, 낮은 失業率, 安定된 物價水準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tagflation理論이 등장하면서 부터 日本經濟의 比較優位와 日本的 經營方式이 論議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日本株式會社, 綜合貿易商事 그리고 年功序列의 賃金體系, 終身雇傭制度 등 客觀性과 科學的實證을 중요시하는 歐美經濟學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日本的 着想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日本은 資本主義經濟의 論理(利潤動機, 競爭, 創意)와 倫理(分配, 共同意識, 公正)가 교묘히 兩立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수 경제학의 이론으로서의 說明할 수 없는 非科學的인 要素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狀況論理로서 日本經濟를 法人資本主義經濟 또는 社會資本主義經濟라고 稱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日本株式會社, 經濟大國이라고도 稱한다.

1980年 以後 日本經濟가 世界經濟의 先頭走者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客觀的인 사실속에서 우리는 日本經濟의 속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日本經濟는 世界的인 長期不況에 오히려 강한 經濟力뿐 아니라 世界的

인 資源波動에도 강한 經濟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관점을 통해서 볼 때 결국 日本經濟는 對外適應力이 강한 經濟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常識外로 強할 수 있는 日本經濟의 特殊性을 파악할 必要가 생긴다.

우선은 國際經濟環境이 어떻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經濟의 適應力이 有利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다음은 日本經濟의 內的 凝集力이 어디에서 由來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가지 要因을 統一的으로 認識할 때 우리는 日本經濟의 向方을 파악할 수 있으며 韓·日經濟關係의 座標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 國際經濟環境變化와 日本經濟

日本經濟가 世界的으로 그 力을 發揮하기 시작한 것은 70年代의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以後 부터이다. 그런데 이 石油波動에서 그 原因을 찾고 있는 世界的인 不景氣가 금년에도 해소되지 않을 展望을 보임으로써 長期不況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高失業·低成長의 長期不況에 대한 經驗이 不足하기 때문에 世界經濟는 이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이 日本經濟에 有利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81年 後半期부터 石油를 비롯한 國際原資材 價格이 安定局面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不景氣가 지속되고 있으며 日本을 除外한 OECD 諸國의 今年도 GNP 成長도 당초의 豫想보다 둔화되어 0.4%(美國은 -0.7%)로 展望되고 있다. 따라서 石油資源의 需給不均衡에만 長期不況의 責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1929年의 世界大恐慌時 後進國이었던 日本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1931年 大陸侵略으로 不況의 돌파구를 찾았던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결국 현재 계속되고 있는 世界經濟不況은 特定商品(石油)의 價格變化보다도 더 根本的인 要因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곧 國際貿易, 國際通貨, 國際金融, 國際經營(多國籍企業) 등 國際經濟가 逆流하고 있는 점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겠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戰後世界資本主義의 中心國이 된 美國 經濟의 不安과 世界通貨인 달러貨가 그 기능을 충분히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原因이 있는 것이다.

國際金融의 일반적 추세는 선진국에서 저개발국으로 資本이 이동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國際收支가 항상 赤字이기 때문에 資本이 豊富하여 자연히 利率이 낮고 저개발국은 國際收支가 항상 赤字이기 때문에 dollar shortage로 말미암아 利率이 높게 마련이다.

그러나 最近의 世界經濟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國際金融秩序가 完全히 붕괴되어 최선진국인 美國의 金利가 가장 높기 때문에 國際金融이 逆流하고 있다. 美國으로서는 달러가치를 방어하고 資本逃避를 방지함으로써 美國內景氣를 振作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金利政策의 結果라고 할 수 있지만 國際貿易의 結果에 따라 國際通貨가 美國으로 집중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先·後進國은 資金梗塞에 의한 不景氣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의 先進國이 현재 國際收支가 赤字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際金融의 逆流現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二重의 타격을 받아 EC 諸國의 경제가 좀처럼 回復勢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國際收支의 만성적인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 日本經濟는 그 赤字를 國際金融의 逆流에 活用하여 세계적인 投資와 投機를 자행, 世界市場을 確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經濟學의 상식으로는 앞서의 前提처럼 先進國의 利潤率이 낮으며 저개발국의 利潤率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先進國의 過剩資本이 저개발국으로 移動하여 國際投資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설이다.

이와같은 慣例는 20世紀 前半期의 경우 殖民地經營이라고 하는 帝國主義的인 從屬形態로, 後半期에 들어와서는 저개발국의 政治적인 獨立으로 말미암아 國際經濟協力の 形態로 變化되기에 이르렀다.

여하튼 어떤 形態의 國際經濟關係이든 간에 종래에는 對外進出을 통하여 얻어진 利益이 果實送金됨으로써 先進自國의 産業高度化에 推進

力으로 作用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最近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國際經濟關係가 붕괴되어 선진국이 國際投資에서 얻은 利益(果實)을 自國으로 環流시키지 않고 저개발국의 現地에서 再投資하거나 다른 저개발국으로 投資를 擴大시켜 多國籍企業 또는 國際經營이라는 形態로 國際經濟活動이 變質되고 있다. 특히 美國은 이러한 現象이 심하여 美國內의 再投資나 新投資가 활발히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失業率이 높아지고 景氣가 回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은 西歐資本主義와는 달리 共同體意識이 강한 一國中心의 資本主義이기 때문에 國際貿易이나 國際投資에서 얻어진 利益이 전부 果實送金으로 環流되어 國內經濟가 계속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다만 EC 諸國의 경우는 美國이 不足한 資本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高金利政策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탓에 그 影響을 받아 景氣가 좀처럼 回復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美國이 값싼 輸入品(日本製)을 擴大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收支마저 赤字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日本만 漁夫之利를 얻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國際貿易의 展開는 先進國은 工業國으로서 第2次產品을 輸出하고 저개발국은 農業國으로서 第1次產品을 輸出하여 比較生産費說에 입각한 國別特化로서 나뉠대로의 國際貿易利益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最近의 國際貿易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저개발국가가 第1次產品을 美國으로부터 수입하여 食生活를 營爲하고 있기 때문에 農業의 쇠퇴가 外部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美國은 최선진국이면서도 電子, 自動車, 機械 등 重化學工業製品을 오히려 日本으로부터 輸入하는 國際貿易의 逆流現象이 빚어지고 있다.

결국 國際貿易의 逆流로 말미암아 美國을 비롯한 대부분의 先·後進國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日本은 일찌기 食糧自給을 위해 莫大한 財政支出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전적 經濟學이 無色하게 된 國際經濟의 錯覺이 이

뤄지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最近의 世界經濟 不況은 國際金融의 逆流, 國際經濟의 逆流 그리고 國際貿易의 逆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日本經濟는 오히려 이러한 逆流에서 得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逆流現象을 自超한 美國은 逆流에서 얻은 利益이 점차 사라지고 그 피해가 증가(국내시장 잠식)되자 自國中心의 새로운 經濟政策을 強化하여 世界經濟의 多角化 傾向이 不景氣속에서 進行되고 있다.

한편 日本을 除外한 OECD 諸國은 福祉國家의 指向政策으로 國民의 租稅負擔率이 높다. 따라서 선진국이면서도 國內問題에 중점을 둔 國民主義的 經濟政策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이 點에선 美國 역시 例外일 수 없다.

특히 資本課稅와 法人課稅가 加重되기 때문에 美國의 巨大企業이 海外로 移住하여 소위 多國籍企業이 팽창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같이 資本이 環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高金利政策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福祉水準도 낮고 租稅負擔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차원에서 國內外的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Ⅲ. 日本經濟의 形成과 軍國主義

이상에서는 最近의 國際經濟環境變化(不景氣의 長期化)가 오히려 日本經濟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日本만이 경제적변영을 이룩하게 된 外的動因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外的與件을 충분히 活用할 수 있는 內在的 要因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고 變質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明治維新이래 日本을 지배하였던 基本論理는 教育立國과 貿易立國을 통한 富國強兵으로 亞細亞속의 西歐를 建設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論理는 日本自體의 半徑을 擴大시키기 위한 「征韓論」과 「脫亞論」을 내세워 軍國主義로 구체화된다.

教育立國論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國立大學을 일찌기 設立하여 보편 타당한 眞理보다 國益을 앞세우는 國學으로 集

約되어 日本的 國粹主義思想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思想은 天皇制 政治形態를 공고히 함으로써 배타적인 侵略論理로 擴大되었다. 對內的으로는 教育制度의 官僚化를 통하여 市民社會의 階層化를 형성함으로써 개인보다는 社會, 社會보다는 國家를 우선시키는 價値體系의 確立과 위로부터 지배하는 일사불란의 통일조직이 이룩되었던 것이다.

한편 貿易立國論은 賦存資源이 全無한 日本으로써 貿易의 利益이 바로 國益이라고 하는 극히 商業主義的인 國家經營形態로 나타났다.

더우기 이러한 貿易의 商業的 差額에 만족하지 않고 軍事力으로 外國을 侵略하고 不等價交換을 강요하는 帝國主義로 變質되었다.

특히 日本은 淸日戰爭의 賠償金으로 近代國家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世界第1次大戰에서는 武器販賣와 中國駐屯의 漁夫之利를 얻었기 때문에 教育立國이나 貿易立國보다 侵略을 擴大하기 위한 強兵이 곧 富國의 길이라고 하는 論理로 비약하여 軍事的인 帝國主義가 만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日本經濟는 資本主義의 정상적인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人爲的인 制度의 變化와 軍事的인 侵略으로 西歐諸國이 數世紀에 걸쳐 이룩한 産業革命을 불과 20~30年內에 完成시킨 變型的 資本主義經濟라고 규명할 수 있다.

이와같은 발전과정으로 體制上 內部가 허약하고 國民經濟가 형성되지 못한 채 軍需産業을 中心으로 한 國家經濟만이 팽창한 奇型的 經濟構造가 초래되기에 이르러 결국 내부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外部指向策으로 더 큰 侵略戰爭을 벌임으로써 敗戰의 길을 스스로 擇하게 된다.

世界第2次大戰의 도발이 日本으로서는 애당초 승산이 없는 戰爭이었지만 日本의 資本主義가 왜곡 變形된 것이기 때문에 侵略과 協商으로 지탱하여 온 과거의 屬性에서 벗어나지 못해 擴戰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보아 틀림없다.

그러나 第2次大戰의 世界史的 意義라고 할 수 있는 미·소간의 體制上 對立으로 말미암아 敗戰國인 日本은 賠償金을 支拂하기는 고사하고 美國의 원조에 의하여 美國의 동반자로 등

장함과 동시에 自由世界의 代表者格의 위치를 確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敗戰은 日本으로 하여금 明治維新 이래 日本近代史의 主流를 형성하여 온 侵略論理의 錯覺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民主化라고 하는 日本經濟의 신기원을 전개시키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日本 侵略戰爭의 物的土臺가 되었던 地主制農業과 新興財閥企業이 敗戰에 의하여 철저히 정리됨으로써 帝國主義的인 國家經濟가 붕괴되고 國民經濟가 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外部로부터 맞이하였던 것이다. 美占領軍이라고 하는 外部의 절대적인 힘에 의하여 비로서 日本經濟의 軍國主義的인 性格이 제거되고 정상적인 資本主義化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IV. 日本經濟의 變質과 官僚主義

美軍에 의하여 제일 먼저 실시된 對日占領政策은 軍國主義의 復活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侵略戰爭의 物的土臺가 되었던 地主勢力과 財閥勢力의 解體作業이었으며 이는 곧 農業과 工業의 民主化 改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美國의 깊은 戰略이 있었기 때문에 日本의 民主化作業이 당시 우리나라 보다 철저하게 실시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남게 된 것이다.

美軍政이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直接統治하였던 것과는 달리 敗戰國인 日本에 대하여서는 日本政府를 통한 間接統治를 실시하였다. 日本의 무조건항복에 의하여 世界第2次大戰이 끝났지만 美國의 戰後世界戰略의 變質로 日本의 天皇制가 存續되어 美占領政策은 사실상 日本政府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다시 말하면 美占領軍의 모든 政策은 強力한 對日民主化戰略의 基本線에 입각하여 日本政府가 계획하고 집행하였으며 따라서 敗戰前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地主와 財閥의 해체작업이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이룩되었다.

이로서 종래의 地主·小作關係를 完全히 清算하여 신속히 農民의土地所有制를 確立하였기 때문에 그 후 日本經濟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때

生産者로 定着한 農民은 오히려 인플레이의 德을 보아 日本資本主義의 기반이 된다. 또한 財閥解體의 命令에 따라 戰爭을 뒷받침하였던 財閥의 本社를 해체하고 그 保有株式을 公開分散하였으며 獨占禁止法을 시행하여 族閥의 獨占經營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工業民主化의 기틀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勞動組合法과 勞動基準法을 제정하여 勞動權을 보장함으로써 勤勞者의 生活安定은 물론 勞動生産性 向上의 계기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3大民主化改革은 모두 美占領軍의 指令에 의해 日本政府가 實現시켰다는데 特徵이 있다. 다시 말해 日本經濟의 民主化改革이 外部勢力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모두 主體의 으로 성취되었으며 그 過程에서 日本政府가 결정적인 役割을 하게 됨으로써 國民經濟形成의 官主導的 性格을 明確히 드러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日本資本主義經濟가 종래의 軍事的인 帝國主義 性格에서 官僚的인 政府主導型의 性格으로 탈바꿈된다. 즉 軍事的 侵略에 의한 國益에서 잘 훈련된 官僚와 國粹主義的인 國立大學體系에 의하여 指導받는 資本主義經濟로 變質되었던 것이다.

한편 戰後의 日本經濟가 모두 政府主導下의 國民經濟로 體質改善하기 시작하였으나 여기에는 많은 시련이 뒤따라 食生活조차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950年代 初의 韓國動亂과 美日講和條約 締結은 日本에게 國民經濟活性化의 계기가 되었고 政治的으로도 完全獨立이 보장됨으로써 自由世界의 指導者의 位置를 공고히 하기 시작하였다.

1956年 日本政府는 「戰後時代」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종래의 景氣浮揚政策 대신 「國民所得倍增計劃」을 樹立執行함으로써 10年만에 敗戰을 이룬 高度經濟成長時代가 開幕된다. 日本經濟는 다음의 經濟成長率 <表-1>에서 알 수 있듯이 韓國動亂에 의한 「特需붐」을 맞이하여 1953年부터 年平均 6%이상의 높은 成長을 記錄하는 등 日本資本主義의 새로운 軌道에 進入하였다.

日本政府의 「國民所得倍增計劃」은 착실히 進

日本의 經濟成長率

<表-1> (1970년價格)

年 度	成 長 率 (%)
1953	6.2
1954	5.9
1955	8.8
1956	7.3
1957	7.4
1958	5.6
1959	8.9
1960	13.4
1961	14.4
1962	7.0

※資料: 日本經濟企劃廳

行되어 1950年代 後半에 「神武景氣」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1958年부터 不景氣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바로 東京올림픽大會가 確定되어 1959年부터 27億弗이라고 하는 世界史上 最大規模의 올림픽施設投資가 着手되었다. 따라서 日本經濟는 1960年代初 日本歷史上 最高의 好景氣인 「岩戶景氣」를 구가하게 되었고 1964年 東京올림픽 開催이후에도 高度經濟成長이 지속되어 第2의 經濟大國으로 부상되었다. 그리고 前述한 70年代의 國際經濟 環境變化의 파도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이다.

V. 日本經濟의 屬性和 進路

戰後의 日本經濟가 軍事的인 國家主義經濟로부터 國民經濟로 탈바꿈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政府主導의 經濟計劃이 결정적 役割을 擔當함으로써 一國資本主義的인 屬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性格때문에 日本經濟를 「日本株式會社」라고 통칭하는가 하면 日本의 綜合商事를 이 日本株式會社의 營業部라고 비유기도 한다.

日本은 원래 資源이 全無하고 人口가 과밀하기 때문에 항상 위기속에서 自己誇示에 努力하고 있으며 이는 곧 組織과 全體主義的인 行動方式을 통한 國粹主義로 나타났다. 戰後에 있어서도 이러한 思考方式에 변함이 없어 日本經濟의 國家主義的인 大國指向은 계속되고 있으며

特別企劃

다만 軍事的인 性格이 政府主導의 官僚主義的 性格으로 代替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日本經濟는 政府主導下로 大國指向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規模經濟(economies of scale) 論理로 再武裝하려는 屬性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면 製鐵, 自動車, 船舶, 電子, TV放送, 新聞社 등 모든 분야에서 美·英등과 競爭하기 위하여 最大限 費用을 절약하고 最大限 生産性を 向上시키기 위한 規模經濟를 전개하고 있다. 즉 세계적인 適正規模의 生産과 經營體를 이룩하기 위해 어제의 競爭企業끼리 通폐합도 서슴치 않는 등 모든 분야에서 世界 第1을 指向하고 있다.

한편 日本經濟는 원래 東洋的인 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한 後進資本主義이었다. 따라서 封建的인 連帶意識이 강하고 合理的인 利益보다는 社會的 安定을 중요시하며 이를 政府가 리드하는 國家獨占資本主義的인 屬性을 지니고 있다. 具體的인 例로서는 소위 「日本的 經營方式」이라고 하는 年功序列賃金體系와 終身雇傭制度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制度는 個人의 能力보다는 社會 그리고 國家의 安全辨으로서 組織社會의 기능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合理的인 現代社會(西歐社會)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인데 이것이 長期的인 不景氣에 그 效力을 發揮하여 日本的인 經營技法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勞動生産성이 強調되고 있는 오늘날 技術이나 能力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勞動生産性 낮음)에게 賃金を 더 많이 지불하는 제도나 죽을 때까지 雇傭하는 제도는 確實히 상식 이하의 經營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生産性論爭과 「英國病」으로 西歐諸國이 중병을 앓고 있는 데 반하여 日本은 이러한 前近代的인 經營方式으로 經濟成長을 지속시키고 있다. 즉 長幼有序의 封建社會安全裝置가 人事管理·勞務管理 등 企業經營에 적용됨으로써 勞使協力の 제기를 마련하였고 經濟뿐만 아니라 社會, 나아가서 國家全體의 安全을 가져왔던 것이다.

日本經濟의 또하나의 속성은 規模經濟에 맞

는 小國의 技術體系 確立을 통해 大國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美國은 勞動節約的인 技術體系, 西歐諸國은 資本節約的인 技術體系를 確立하였으며 日本은 이들 양자를 모방하는 정도의 技術水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70年代의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資源을 제일 많이 輸入하는 日本은 資源節約的인 技術體系(resources saving technical system)를 確立하여 자기나라 뿐만 아니라 資源波動에 허덕이고 있는 世界各國에게 그 必要性을 실감시켰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日本經濟는 東洋的인 資本主義體制, 日本的經營方式, 그리고 資源節約型技術體系 등을 바탕으로 세계도처에서 競爭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競爭에 있어 綜合商事를 앞세운 日本政府의 조직적인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國家獨點資本主義의 屬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日本이 世界第2의 經濟大國이라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國民生活面에서 15 등국가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日本의 福祉水準이 현재 歐美諸國의 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歐美諸國은 國民의 生活水準이 높은 대신 國際收支는 赤字이고 財政 역시 만성적인 赤字를 면치 못해 國家는 가난한 형편이다. 반면에 日本은 國民生活水準이 낮은 반면 國家는 黑字經營이다.

다시 말하면 방대한 GNP가 소비되어 國民生活로 연결되지 않고 계속 貯蓄됨으로써 世界第1의 貯蓄率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日本이 對外投資와 貿易을 지속擴大, 세계도처에서 經濟的인 戰爭을 야기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 對備하고 아울러 縱·橫으로 얽혀 있는 韓日經濟關係의 座標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日本을 경계하면서 80年代의 經濟計劃을 推進해 나가야 한다. ♣♣